

# 올 생산량 예년 절반수준 못미칠듯 수확기 앞둔 국산약재 전반적 오름세

지리한 여름장마가 끝나고 가을철 보약성수기에 접어들면서 답답한 시장경기가 다소 풀리기를 기대하며 손님맛을 채비를 서두르는 시장사람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그러나 식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및 표백제 검출' 발표 이후 한약시장 경기는 또다시 무겁게 가라앉은 분위기.

지금껏 소비가 너무 부진한 가운데 물동량이 거의 없었던 국산약재 시세가 재배면적 감소와 작황부진으로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예측과 함께 다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일부 상인들 중엔 물량이 다소 달리는 인기품목들을 잡아두고 풀지않고 있어 가격폭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집중호우로 '전멸' 물량구하기 힘들어

**산수유** 산수유는 최근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목. 재배면적 감소와 올 작황부진으로 물량을 구하기가 어렵고 시세도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세 하락으로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한데다 관리소홀, 지난여름 집중호우 영향으로 산지인 구례군의 경우 수확할 열매가 없을 만큼 '전멸' 상태라고. 올 산수유 생산에 상당은 예년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9월말 현재 거래되는 산수유 도매시세는 근당(600g기준) 1만 3천원 선. 이 시세에도 물량 구하기는 쉽지 않다. 국산 시세폭등으로 인해 한동안 잠잠했던 보따리 물건이 다시 활개를 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속에서 당분간은 상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그런대로 평년작 물량귀해 상보합세

**시호** 9월말 거래되는 근당(600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 1만7천원(통)선으로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다.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이 많지 않기 때문. 근당 1만7천



원에도 물량 구하기가 어렵다.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삼도시호가 다소 확대재배되긴 했으나 종자량이 그리 넉넉치 못해 40~50t 정도의 생산량이 예상되고 있는 수준. 작황은 그런대로 평년작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 시호재배 면적 감소로 생산량은 계속 감소추세다. 당분간 상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청양산 9천원선 11월 본격출하예정

**구기자** 긴 장마비가 쏟아진 후 한달여 계속된 가뭄으로 구기자 작황은 그리 좋지 못한편. 생산량도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햇것이 조금씩 출하되 나오고 있는데 진도 구기자는 근당(600g 기준) 1만원선에, 청양산은 근당 8천5백~9천원 선에 도매거래되고 있으며 11월쯤에 햇것출하가 본격화될 예정. 소비부진으로 지난해 재고량도 상당량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진도산지에만도 약 4만근 정도 재고로 쌓여 있다고.

## 올 작황부진으로 상품귀해, 근당 4천원

**작약** 내수부진으로 시세가 없자 물량을 갖고 있는 상인들이 풀지 않고 쌓아두고 있어 물동량도 귀한편.

규격화가 본격 시행된 9월 그 이전까지 비규격품도 어느정도 소모되고 없는 상황에서 한의원이나 한약방등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서서히 가을철 소비약재들을 구입해야 할 때. 추석명절이 지나고부터 물동량이 다소 활기를 띠 전망이다.

경동약령시장 내에서 9월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작약 근당(6백g기준) 도매시세는 상품이 4천~4천5백원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2천원대까지 거래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 작황도 부진한 편이어서 햇것 출하되더라도 상품은 귀할것이란 분석.

## 재배면적 감소로 생산량 감소예상 근당 5천원, 상보합세

**황기** 9월말 현재 소비지에서 도매거래되는 근당(600g 기준) 시세는 1년근 소황기가 5천~5천5백원 선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재고량이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올 작황이 그리 좋지않은 편이어서 햇것 출하량은 예년의 절반수준에 그칠것으로 보고 있다.

1년근 소황기가 주로 생산되는 경기도 포천, 충북 제천지역의 경우도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하락한 황기 시세 때문에 재배면적이 예

년비 30%가량 감소하기도 했지만 지난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뿌리가 실하지 못하고 썩어나간 면적이 많아 평당 수확량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세는 당분간 상보합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 일천궁 오름세 근당 3천5백원선

**천궁** 물량공급이 달리는 다른 약재와 함께 일천궁 시세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약시장에서 도매거래되는 9월말 현재 일천궁 근당(600g 기준)

시세는 3천~3천5백원 선(절), 토천궁은 근당 4천5백원 선(절)에 도매거래되고 있다. 토천궁은 물량이 귀한편. 일천궁 작황도 부진한 편이어서 시세는 당분간 약오름세 전망되고 있다.

## 통자로 근당 3천2백원 추내올 높아 흥작

**당귀** 당귀 역시 작황 부진한 가운데 지난해 재고량이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햇것 출하량이 대폭 감소 예상됨에 따라 시세도 다소 상승세를 보일것으로 전망된다. 경동약령시장등지에서 9월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근당(600g 기준) 도매시세는 통자가 3천1,2백원선, 절당

귀는 3천8백~4천원 선으로 오름세. 재배면적도 예년비 절반가까이 감소한데다 추대율이 높아 20%가량은 갈아엎은 밭이 많아 지난해만 해도 1천5백t 가량 생산되던 평창군의 경우 올해는 약6백t 정도에 그칠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귀 재고량은 약4백20t 정도로 추정.

## 수해로 열매부실 1만5천에도 물량없어

**오미자** 지리한 장마에 집중호우까지 가세 침수기간이 길다보니 뿌리썩음병 발생이 심하고 열매도 부실해 올 수확량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란 분석이다. 덕유산과 지리산 자락인 거창, 함양, 무주, 진안, 장수등지에서도 예년 10만근(60t) 생산량의 40%인 4만근(24t) 정도에 그칠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근당(600g 기준) 도매시세는 1만5천원 선이지만 물량이 없다고.

## 뿌리썩음병 발생 수확면적 감소예상

**지황** 지난 여름 수해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작목 중의 하나가 지황. 습기에 약한 작목의 특성상 계속된 집중호우로 뿌리썩음병 발생이 심해 파종면적중 20~30% 정도만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건지황 근당(600g 기준) 도매시세는 8천원 선. 개량종 '지황 1호'가 제천, 전주, 김천, 전남지역 등지에서 수천평씩 재배되긴 했으나 수확하기도 전에 미리 계약된 경우가 많다. 올 국내산 지황 생산량은 충분치 않지만 내년 상반기 북한산 지황이 약2백10여t 반입될 예정이어서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것으로 전망. <회>

### 생활속의 지혜

## "감귤껍질을 표백제로"

살림에도 요령이 있다. 자기가 가진 살림의 노하우는 커다란 자산. 어찌할 바 몰라 애를 먹는 시간과 아까운 물건들을 버리는 손실을 줄일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등 생활전반에 걸쳐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의 지혜, 번거로운 집안일을 절반으로 줄이고 낭비도 막는 아이디어를 소개한다.

팬티나 런닝과 같은 흰 속옷을 빨 때 감귤껍질은 더 없이 좋고 안전한 표백제 역할을 한다. 우선 바깥 말린 감귤껍질을 물과 함께 끓인 다음 그 속에 깨끗이 빨 속옷을 5분쯤 담갔다 꺼내서 깨끗한 물로 행군다. 표백제를 넣어 빨래한 것과 같이 하얗게 된다.